

# 고흥,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보호 교육 실시

## 친절 높이고, 안전 더하는 안심 민원환경



고흥군이 고흥문화회관에서 직원 친절·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보성군, 공직자 친절·고충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보성군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 친절 및 고충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친절 의식을 높이고 고충민원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직자 100명씩 총 4기수로 나눠 기수별 3시간씩 진행했으며, ▲민원응대 CS 클래스, ▲친절 소통 콘서트, ▲전화응대 역량 강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특이(악성)민원 응대법 등 실제 민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실제 고충민원 사례를 활용해 민원인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한 소통 기법을 익히고, 특이(악성)민원과 반복민원 발생 시 상황별 대응 요령을 교육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명원관 군수는 최근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대 전환기획위원회 백승주 부위원장(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해남군 미래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사업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건의에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솔라시도 조성과 솔라시도 투자 촉진을 위한 연계 도로망 조기 구축 등 해남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사업 2건을 비롯해 기획위원회 분과별 검토가 필요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명 군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솔라시도가 전남·광주 통합시대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거점임을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용 전력 공급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가 정책 반영에 기획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보현기자

진도군 농업인, 전국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우수상 수상'

장흥군, 수자원공사 댐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진도군 농업인인 '아망뜨진도'의 신혜민 대표가 '2026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충북 청주에 있는 오스코(OSCO)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 경영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업인의 스마트경영 역량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신혜민 대표는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분야에서 '애플망고 화분 밀식 재배와 저비용 데이터 제어기기 도입을 통한 지역상생 모델 구축'을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애플망고 재배에 스마트농업과 데이터 기반 경영을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인 점이 평가를 받았다. /이재평기자

장흥군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한 '2026년 댐 지원사업 지자체 일반 신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장흥댐 휴게소 리뉴얼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상생·협력 모델 발굴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공모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장흥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장흥군은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26년 수변구역 주민특별지원사업에 장흥댐 휴게소 리뉴얼 사업이 선정돼 2026년 1월부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약 5억 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백두연기자

# '완도 반값 여행' 인기! 26일부터 3차 사전 신청 시작

구분	최소 소비금액
개인(1인)	50만 원 이상
가족(2인 이상)	100만 원 이상
단체(3인 이상)	150만 원 이상
기업/단체	200만 원 이상

사업 안내 포스터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완도 반값 여행'의 3차 사전 신청을 6월 26일부터 받는다.

3차 사전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완도 여행 계획이 있는 관광객(인근 지역 강진·해남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완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완도에서 숙박, 식사, 체험, 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여행 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최소 소비 금액은 10만 원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1인) 기준 최대 10만 원, 청년(19~34세)은 최대 14만 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 가족(최대 5인)은 최대 50만 원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을 오기 최소 1일 전 반드시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에 사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완도 관광지에서 촬영(신청자 및 동반인 포함)한 사진 2장 이상과 숙박·식당·카페·특산물 판매장·체험장 등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누리집을 통해 증빙하면 된다.

한편, 1, 2차 완도 반값 여행 신청자는 총 16,257명으로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액은 15억 9백여만 원으로 집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 여행은 1·2차에 이어 3차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여름휴가는 완도를 찾아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치유하고 여행 경비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문수기자

